선박조종에 나타난 해기사 인적요류 특성 분석

박득진*, ‡ 양형선• 양원재** • 임정빈***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Analysis of Human Error Characteristics of Navigator in Ship Maneuvering

Deukjin Park* ‡ Hyeongseon Yang • Wonjae Yang** ‡ Jeong-Bin Yim***
*Graduated School,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9828, Korea
**• ‡Division of Navigation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9828, Korea
***Division of Navigation Scienc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usan 606-791, Korea

Abstract: Marine accidents continue to occur every year due to human err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navigational safety by preventing ship collision accidents caused by human errors of behavior of navigators. There are two ways to manage human error caused by navigator’s behavior. It is divided into individual approach and system approach, which is applied to situational awareness theory and Rasmussen’s behavioral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past marine accidents caused by human error and conducted experiments using ship handling simulators to identify these two behavioral characteristics. After analyzing two human error characteristics, we will propose a countermeasure in next study.

K e y w o r d s: Maritime Accidents, Human Error, Ship Maneuvering, Navigator Behavior, Ship Handling Simulator

1. 서 론

해기사의 인적요류로 인한 해양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적요류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해기사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 사고의 원인을 인적요류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기사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해기사 행동 특성 식별

해기사의 행동특성은 선박의 조종에 영향을 미치며, 선박의 운항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기사의 행동특성은 선박의 조종에 영향을 미치며, 선박의 운항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기사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기사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분석 및 결론

개인 접근법과 시스템 접근법은 해기사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 접근법은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 접근법은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 접근법은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 접근법은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 접근법은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 접근법은 개인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다.

* 종신교수, epikyang@mmu.ac.kr
* 종신교수, pdj@mmu.ac.kr
*** 종신교수, jbyim@kmu.ac.kr